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수봉도서관과 업무 협약

✎ 장호영 기자 | ⓒ 승인 2020.11.04 15:07

지역주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 공동 연구키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학과장 김규환)가 지난 3일 수봉도서관(관장 김봉세)과 지주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천대 문헌정보학과와 수봉도서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 인천대)

두 기관은 3일 수봉도서관 3층 담누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기존 교육적 목적을 넘어 도서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실제 운영 단계까지 학생들이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2016년 두 기관은 업무 협약 체결 후 현장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과 캡스톤디자인(공학 계열의 학생에게 졸업 논문 대신,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작품을 기획·설계·제작하게 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 과정) 프로젝트, 계절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매년 추진해왔다.

김규환 인천대 문헌정보학과장은 "앞으로 문헌정보학과와 수봉도서관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등 다양한 도서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공동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세 수봉도서관장은 "업무 협약으로 수봉도서관의 서비스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봉도서관을 넘어 인천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